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반듯한 선비의 풍모도 묻어낸다. 게다가 녹음까지 어우러진 7월의 풍경은 아름답고, 분위기는 한껏 여유롭다. 출입문을 지나면 유식공간인 현가루, 화공공간인 명륜당,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어지는데 아름답고 은은한 무들의 질푸른 잎들이 운치를 더해준다.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고장 정읍의 대표적 문화자원인 무성서원이 세계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으로 거듭났다. 유네스코는 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무성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을 엮어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서원은 무성서원 외에도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둔암서원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 한국 성리학의 관련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며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성리학 문화적 전통의 증거... 국가브랜드 '우뚝'

▲1천여 년 시간을 만나다

무성서원은 1615년 서원으로 출발했다. 태산서원으로 불리다가 숙종 22년인 1696년 사액(賜額)을 받아 무성서원으로 개칭됐다. 고종 5년(1868년)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북도 유일의 서원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47개의 서원만 남았는데 전라도에서는 무성서원과 장성 필암서원, 광주 포충사만 헐리지 않았다.

무성서원 사당 한가운데에는 고운 최치원(857년~?)의 위패와 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는 신라 말 태산(지금의 태인, 칠보 일대)의 태수를 지냈다. 무성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생사당(백성들이 감사나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제사지내는 사당)인 태산사가 뿌리다. 고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성서원은 1천 여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고운이 태산군의 태수로 부임한 886년경부터 계산하면 1100여 년의 역사이다.

무성서원은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한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했고, 지역민 결집의 중심이었다. 전문가들은 "향촌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지식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거점이었다"고 평한다.

대표적 인물이 조선 초의 문인 불우현 정극인(1401~1481, 경기도 광주 출생)이다. 불우현은 1436년 벼슬에서 물러나 처량(妻卿)인 태인

현재까지 도내 유일 서원으로 보존

마을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정읍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그의 묘소와 유적이 현재 칠보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당대의 지명은 태산(泰山)과 인의(仁義)가 합쳐진(1409년 '태인현'이었다)에 내려와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은 자연 속에 묻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했다. 그는 특히 성리학적 질서를 담은 지역사치 규약인 고현동향약(1475, 보물 1181호)을 통해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이웃과의 화목을 권장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일제 강점기인 1906년에는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병오창의가 일어났다. 면암 최익현과 둔헌 임병찬이 주도한 이 사건은 호남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지역 중심서원이자 정신사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경기 포천 사람인 최익현이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일까? 동양학으로 유명한 한 교수는 "그만큼 이 동네(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에 선비정신이 켜켜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기념하는 병오창의기념비가 사원 안에 있다. 정기적으로 관련 행사도 열리고 있다.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됨에 따라 유진섭 정읍시장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부터 개방과 소통까지

무성서원을 찾은 이들은 "폐쇄적이지 않고, 건축물이 간결하며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동일한 것에서 민(民)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서원 건축물들도 마을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서원 영역 전체를 관통한다.

강당을 보면 가운데 마루 3칸이 벽체가 없이 툇 띄어있어 내삼문의 태극문양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층재 무성서원 부원장은 "비움의 담백함"이라는 우리 아름다움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는 절묘한 조형이다. 무성서원에서 공부하던 군더더기 하나 없이 반듯한 선비의 모습 그대로"라고 평했다. 또 유진섭 시장은 "교

육공간이기도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했던 장소가 무성서원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성서원은 배향 인물도 많다. 고운과 불우현, 서원 인근에서 활동하던 영천 신잠(1491~1554)과 놀암 송세립(1479~1519), 목재 정언충(1491~1557), 성재 김약목(1500~1558), 명천 김권(1549~1622) 모두 일곱이다.

▲최치원의 풍류정신을 잇다... 국가브랜드로 우뚝

고운의 숨결이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무성서원은 정읍의 정신적, 문화사적 큰 자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는 진즉부터 무성서원을 중

심으로 한 무성서원선비문화수련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호남 선비정신 수련과 풍류 문화를 배우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거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비수련원은 무성서원 인근 4만2492㎡ 부지에 세워진다. 선비문화수련과 체험,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 해 올 11월까지 최치원과 정극인 등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에 대한 강좌와 나라사랑 관련악단, 전라정가진흥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또 무성서원 본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강화당을 운영하고 서원과 주요 역사 관련 장소를 답사하면서 예절과 다례·사자소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등의 이벤트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공유토록 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무성서원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보존 관리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무성서원과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생태, 예술, 유산 등 가치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 문화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